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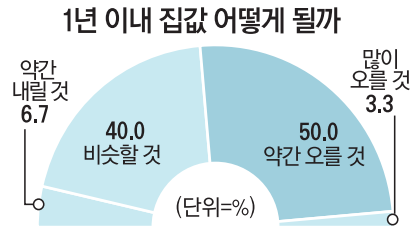
부동산 전문가 긴급진단

“1년내 집값 오를것” 53%

최근 '분양시장 청약 열풍'과 '전·월세 과세에 따른 매매 위축'으로 부동산 투자 방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관련기사 A4·5면

6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5월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6명(53.3%)은 1년 이내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2명(6.7%)에 불과했고, 12명(40%)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 유망 부동산 상품'으로는 응답자 중 56.7%(17명)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꼽아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아파트 청약 열풍을 반영했다. 이어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가 26.7%(8명)로 2위에 올라 전·월



10명중 7명은
“한두달내 집 사야”

세 소득 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아파트가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추천받았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 하는 적절한 시점'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까운 14명(46.7%)이 '올해 2분기 안에 사라'고 답했고 '지금 바로 사라'는 응답자도 7명(23.3%)에 달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2분기

를 주택 구입 호기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꼽은 전문가는 9명(30%)이었으며 내년 이후로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집을 사지 말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출범 15개월째를 맞은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C학점을 줬다. A학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B학점도 6명에 그쳤다. 반면 D학점은 5명, 무응답은 3명이었다. 지난 1~2월 실시됐던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B학점 이상 평가를 받았던 데 비하면 두 달 만에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죽어가던 시장에 숨을 불어넣을 노력은 인정하지만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로 시장에 큰 혼란을 준 것 때문에 낮은 점수를 매겼다.

고재만 기자

與 서울·인천 ‘세월호 후폭풍’

박원순 49% > 정몽준 37%, 송영길 39% > 유정복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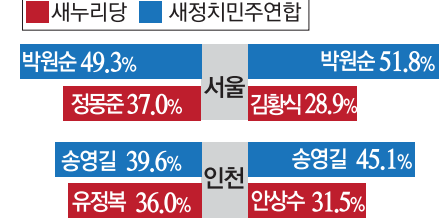
매경·MBN 지방선거 여론조사

6·4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인천시장 여론 후보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몽준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후보는 한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현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맹추격했지만 5월 초 연휴 때 여론조사에선 박 시장에 12%포인트 차이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후보도 오차범위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에 역전을 허용했다. ▶관련기사 A6면

매일경제·MBN이 지난 3~5일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 19세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박 시장 49.3%, 정 후

6·4 지방선거 서울·인천 가상 대결



*조사 대상=서울·인천 거주 각각 만 19세 이상 성인 600명, 조사기간=5월 3~5일, 표본오차=±5% 신뢰수준에 ±4.0%포인트, 자료=메트릭스

보 37%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3월 중순 동일 기관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47.1%와 40.7%로 오차범위 내 점진을 보였다. 또 인천 거주 성인 6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장 가상대결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 39.6%,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 36%였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난 3월 조사 당시 지지도가 각각 39.1%, 39.2%였다 는 점에서 야당 후보 지지도는 변함이 없

는 상황에서 야당 후보 지지율만 뚜렷하게 하락한 것이다.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도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을 때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와 각각 38%와 41.2%로 점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44.6%가 '찬성', 33.1%가 '반대' 태도를 각각 보였다.

서울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가 야당에 불리한 것(46.6%)이라는 응답이 별 영향이 없었(39.7%)이라는 답변보다 많았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지지 후보를 변경했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거주 성인 남녀 각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다.

이상훈·장용승 기자

M&A ‘큰손’ 사모펀드가 뜬다

작년 PE시장 7조 사상최대

지난해 한국 사모투자(PE) 시장이 7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다. 한 건에 조 단위를 훌쩍 넘는 대형 인수·합병(M&A)이 잇달아 성사되면서 투자를 집행하는 사모투자회사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새로운 투자처인 대체투자에 적극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A3면

6일 컨설팅기업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E시장 규모는 7조1664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국내 PE시장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구 제금융 직후인 1998년 1조3121억원 수준

에서 15년 새 5배 넘게 커진 셈이다. 지난해에 ING생명(1조8400억원) 코웨이(1조1915억원) 네파(9900억원) 등이 팔린 데 이어 올해도 오비맥주(6조2350억원) ADT캡스(2조665억원) 등 PE가 참여한 대형 M&A가 잇따르고 있다.

대체투자는 새로운 대안이 되는 투자 방식을 통칭한다. 주로 기업 경영권이나 지분을 인수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해 차익을 노리거나 사무용 건물 등을 사들여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가 많은데 통상 '채권금리+α' 수익률을 추구한다.

대체투자가 활성화하면서 국내 PEF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 PEF 출자 약정액은 2007

년 9조원에서 지난해 말 44조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 PEF들도 적극적이다. 매일경제는 갈수록 중요해진 글로벌 대체투자 흐름을 짚고 효과적 투자전략을 모색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를 오는 1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강중동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한나·한우람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용어 사모투자·사모투자사(PE) : 소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특정 기업 지분을 대량 인수한 후 경영에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나 그 투자 운용주체를 말한다. PE가 결정한 펀드가 사모펀드(PEF)다.

14시간전 신호오류 보고 받고도 목살

선형 지하철 기관사는 출발 지연 안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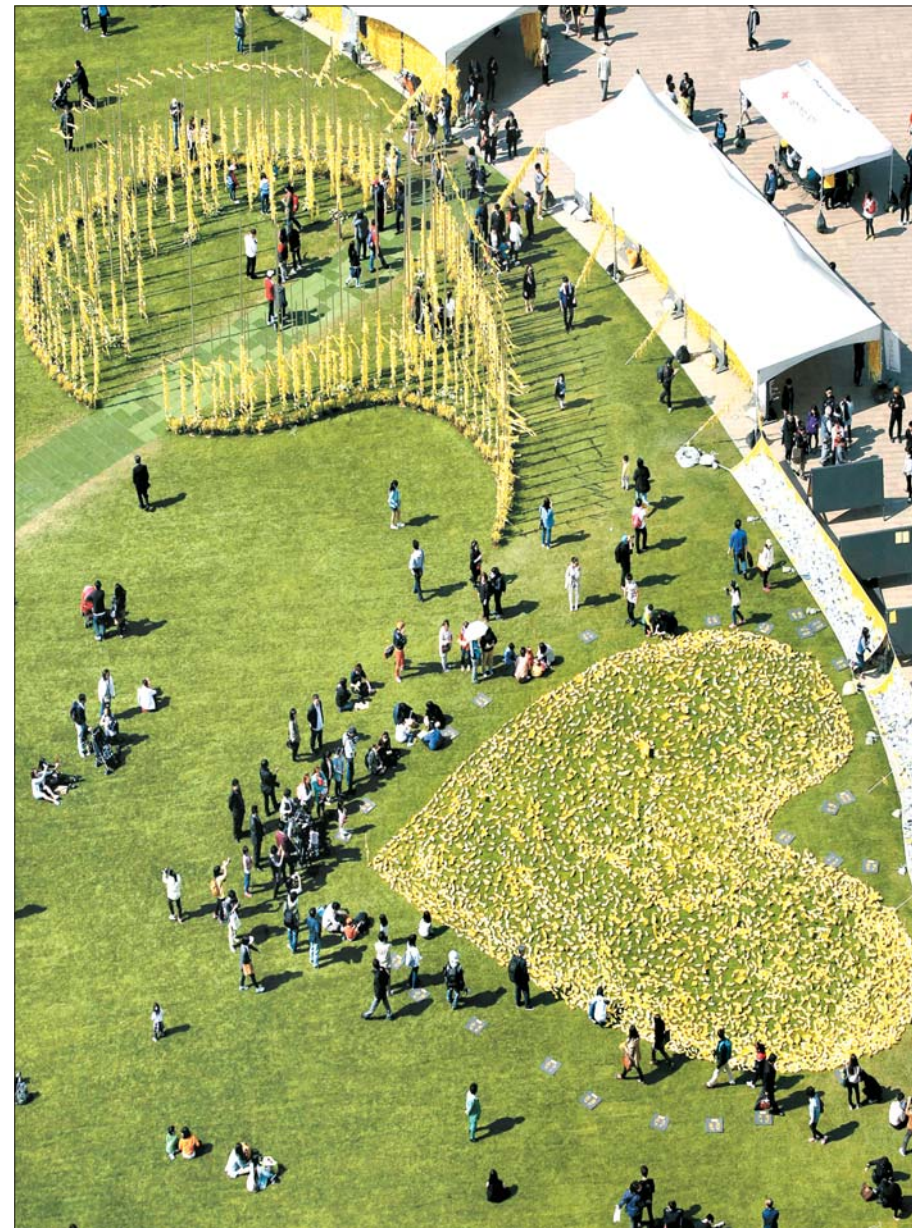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실리역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 14시간 전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가 신호시스템 오류를 알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선형 열차 기관사도 지연 출발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돌 발

미를 제공했다. ▶관련기사 A26면
상왕실리역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기관사와 종합관제소 근무자, 신호시스템 관리자 등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은 사고 14시간 전인 2일 오전 1시 30분 상왕실리역 신호 오류를 보고했지만 통상적 오류라고 판단해 신호관리소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선형 열차 기관사는 1분 넘게 지연 출발하면서 이를 관제소에 알리지 않았다. 종합관제소도 모니터상에 선형 열차와 후행 열차 간격이 급속히 좁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 관리가 된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진호 기자

노란종이배 띄운 추모의 광장



불기 2558년 석가탄신일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시민들이 눈물 모양으로 된 노란리본 정원 옆에 추모메시지를 담은 노란 종이배를 놓아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민간잠수사 1명 사망

숨겨 차남 강제송환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 21일째인 6일 실종자 수색작업에 첫 투입된 민간 잠수사가 목숨을 잃었다. ▶관련기사 A27면

이날 오전 6시 6분께 가이드라인 재설치를 위해 목숨을 들어간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53)가 11분 만에 수심 24m 지점에서 통신이 끊겼다. 이씨는 함께 작업하던 소방방재청 잠수사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현장에서 해군 군의관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쉼기로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했으나 오전 7시 36분 결국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수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씨가 공기공급장치를 벗은 상태였고, 벗은 공기공급장치 호스와 주변 다른 줄이 복잡하게 꼬여 있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5일 현장에 투입돼 한 하루 만에 잠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투입이 희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병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차남 핵기 씨가 출석을 재정보한 8일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핵기 씨가 불출석할 수도 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핵기 씨 등 소재 파악과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원주·진도/김명환 기자

Health & Life B1·8면

제휴골프장 회원대우

무료숙박권 30매 증정

골프와 콘도를 회원권 하나로!

“559만원”

분양금 100% 전액반환

회 / 원 / 특 / 전

- 계약과 동시에 전국 15개 체인 이용
- 10년 후 분양금 100% 전액 반환
- 65세 이상 회원분께 호도카드 발급
- 직영콘도 사우나, 수영장 평생 무료
- 회원명의 카드발급 4장~6장

100분 한정 가입특전

- 객실 무료 숙박권 30매 증정
- 사우나, 수영장 무료 이용권 30매 증정
- 수도권, 경기도 6곳 정회원 대우 및 전국 제휴골프장 할인
- 제휴 워터파크 할인

사우나 & 수영장

FAMILIAR Restaurant & Cafe

9차 일성문경세계리조트 예정!

설악산, 경주부원, 제주비치, 부곡은진, 무주, 지리산, 남한강, 제주형, 문경세계 2014년 착공 예정!

예금주: 일성레저산업(주) 국인 055-25-0004-191 / 기업 068-076289-04-024 / 우리 194-04-107288 / 하나 375-910021-36604
※지정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연계제인 | 양지파인리조트 | 웰리힐리파크 | 도고글로벌리조트 | 청풍리조트 | 덕구온천리조트 / 경주코오롱호텔

문의 **02-6440-1100**

1:1담당 레저컨설턴트 직원에게 연결됩니다.
법인상당환영. 야간 및 휴일에도 상담합니다!